

아시아 도자문화 Asian Ceramic Culture

국립광주박물관 뉴스레터 제12호
Gwangju National Museum Newsletter

2020년 도자 전시 특집호



아시아도자문화실,

전시하는 시간의 중첩_이재용작가 촬영

CONTENTS

02 도자 전시 1
국립광주박물관 상설전시실 신설
아시아도자문화실_장효진

04 도자 전시 2
발굴, 그 후: 청진지구_송동림

05 도자 전시 3
다향다색: 차문화 속 청자 이야기_노영희

06 국외 도자 전시 1
이정류방: 鼎에 이름을 남기다_차오첸원

08 국외 도자 전시 2
비색의 이미지: 고려청자 사진전_조우산산

10 국외 도자 전시 3
천목: 중국 흙유도자의 미_정은진

11 中文·日文 要約

12 English Abstract

창간일 2018년 3월 30일

발행일 2020년 12월 25일

발행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기획·편집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문의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최명지
TEL 062_570_7036
FAX 062_570_7066
MAIL gnmcad@korea.kr

원문(PDF 파일)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gwangju.museu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시아 도자문화 거점'을 지향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이 새롭게 신설한 아시아도자문화실을 소개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상설전시실 신설 아시아도자문화실 亞細亞陶磁文化室

Opening of the Asian Ceramics Gallery
at the Gwangju National Museum

장효진 張孝眞 Jang Hyojin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國立光州博物館 學藝研究士

Gwangju National Museum, Assistant Curator

taocijang@korea.kr



전시기간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전시장소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1층 아시아도자문화실

전시유물 한국·중국·베트남 도자 및 신안해저문화재 1,150여 점

2020년 12월 18일 국립광주박물관은 전시관 1층에 아시아도자문화실을 새롭게 공개하였다.

'아시아도자문화'와 '신안해저문화재' 연구·활용 거점이라는 핵심 브랜드 목표에 따라 이 전시실을 신설하였다. 한국 도자를 비롯한 아시아 도자 발달의 흐름과 신안해저문화재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국내외 도자 자료 1,15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하였다. 1부 '빛나는 유약의 시대를 열다'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부터 조선시대 백자까지 한국 도자를 전시한다. 먼저 한국에서 자기질 그릇이 탄생하기 까지 과정을 한 눈에 보여준다. 전남지방 신석시시대를 대표하는 〈덧무늬 토기〉를 시작으로 철기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토도기류를 선보인다. 그리고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이어지는 한국 도자의 흐름을 당시 사회 문화사와 연계하여 몇 가지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 주제는 '차문화', '문인문화', '의례문화', '길상문화' 등으로 쓰임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된 도자기를 전시하였다.

2부 '갑작스러운 침몰, 우연한 만남, 기적같은 부활'에서는 신안해저문화재를 살펴본다. 신안해저문화재는 1975년 전남 신안군 증도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 꽃병이 걸려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침몰선은 1323년 6월 초, 중국 경원(慶元, 현재의 닝보[寧波])에서 일본 하카타[博多]로 가던 무역선이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이루어진 수중 작업으로 2만 4천여 점의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근래 국립광주박물관에 17,000여 점의 신안해저문화재가 다시 이관되었고 그 일부를 전시하였다. 전시에서는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교역용 도자기, 금속기, 향나무 등을 비롯해 배에서 선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백자 청화 구름 용무늬 항아리〉, 조선 18세기, 높이 52.4cm



전시실 전경

선보인다. 또 당시 동아시아 상류층이 향유했던 중국 물질문화를 엿보고자 ‘차’, ‘향’, ‘꽃’, ‘문방’과 관련된 물품을 진열하는 연출 전시도 기획하였다.

3부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에서는 중국 도자, 베트남 도자, 일본 도자(사진 전시)를 전시하였다. 중국 도자는 한국에서 출토된 것을 위주로 전시하여 고려와 조선시대 사람들이 수입해 사용한 중국 도자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베트남 도자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장기 차용한 작품으로 베트남 도자의 발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각 시대 대표작 73점을 선정하였다. 일본 도자는 사가현립 규슈도자문화관 소장품 50점의 디지털 사진을 전시하여 일본이 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17세기 이후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한 양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일본 도자는 코로나 19 상황이 호전되는 즉시 차용하여 실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4부 ‘도자기 속 과학’ 코너는 보존과학 담당 이해순 학예연구사가 준비하였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매곡동에서 채취한 흙(매곡토)으로 분청사기를 제작한 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실험 과정에서 확인된 매곡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점력이 좋은 흙을 혼합하여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실험 결과물과 영상으로 전시하였다. 또, 전남·광주 지역 가마터에서 출토된 도편을 분석하여 토기에서 자기로 발전하며 나타나는 차이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전시 후반부에 위치한 가상현실 체험관 <700년의 시간여행>에서는 4면 프로젝션 맵핑과 증강현실을 더한 확장현실(XR) 기법을 이용해 7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도자기 구입과 항해, 침몰, 발굴과 전시에 이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은 4명이 한 조로 이루어지며 대략 10분 정도 소요된다. 한편, 체험관 외벽에는 아시아 각국의 도자기를 검색하거나 개인 스마트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는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소장품을 보다 실감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아시아도자문화실 신설은 국립광주박물관의 미래와 그 방향을 예시하는 사실상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전시품을 선보이며 아시아의 도자문화를 전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문을 연 아시아도자문화실 전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관람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연말연시를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백자 철화 사슴무늬 접시〉, 원, 경덕진요, 신안해저 출수 ↑
〈청자 두 귀 달린 병〉, 원, 용천요, 신안해저 출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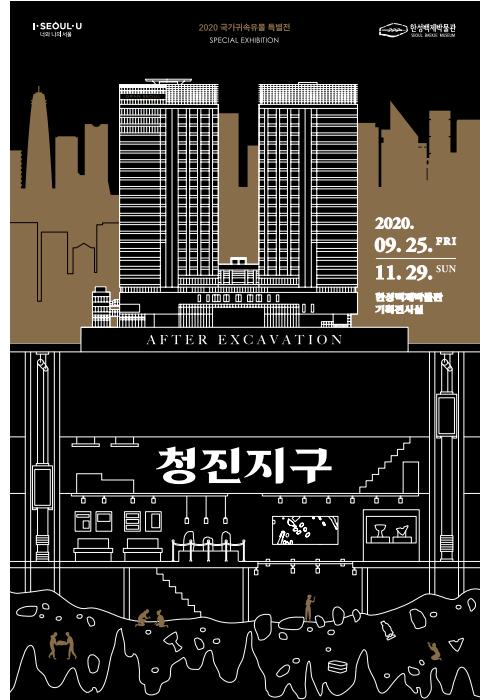


청진지구에서 발견된 유물을 전시한 한성백제박물관 국가귀속유물 특별전을 소개한다.

발굴, 그 후: 청진지구

AFTER EXCAVATION

송동림 宋東林 Song Donglim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漢城百濟博物館 學藝研究士
 Seoul Baekje Museum, Curator
 smaru1122@seoul.go.kr



전시기간 2020년 9월 25일(금)~2020년 11월 29일(일)

전시장소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청진동 12-16지구 출토 경덕진요 청화백자 접시 등 700여 점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2020년 가을 국가귀속유물 특별전으로 『발굴, 그 후 : 청진지구』를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8지구와 12-16지구, 장교동, 서린동, 송현동, 관훈동, 통의동 유적을 중심으로 유적의 발굴 과정과 보존 조치, 출토 유물에 대한 소개를 한 전시이다.

2000년 이후 서울 지역의 발굴조사는 크게 증가하였고, 도심 활성화 전략과 재개발 사업에 맞춰 한양도성과 종로구, 중구 등의 4대문 안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시전행랑터와 육의전터, 군기시터 등 조선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종로 청진동, 서린동, 장교동 유적의 경우 건물의 로비나 외부 공개 부지를 활용해 유구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에 출품된 여섯 유적에서 출토된 6천 점이 넘는 유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물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통·사용된 자기이다. 조선시대 자기의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종류의 자기가 발견되었다. 조선산인 분청사기, 청자, 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와 중국에서 들여온 경덕진요 청화백자와 유리홍자기·분채자기, 용천요 청자, 자주요 백지흑화자

기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의 중심 거리였던 육조(六曹)거리와 그 동쪽에 자리한 관허상인(官許商人)의 점포인 시전이 설치되었던 가장 변화한 상업지역인 시전행랑 인근에서 출토된 자기들로 궁궐에서 사용했던 자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동시대 최고의 자기들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선시대 관청과 관련된 명문이 새겨진 다양한 자기들과 묵서와 점각으로 표시한 자기들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청진동과 주변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던 행정·문화·상업의 중심이라는 것을 출토된 유물들이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로 만들어진 달衰退로운 생활 유물도 발견되었는데, 주사위, 장기알, 벼루, 연적, 가락바퀴, 고드랫돌, 의자[墩]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생활 유적에서 보기 힘든 도자재질의 명기와 제기,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박물관 본연의 기능으로 중요한 소장 유물을 대중에 공개하고 함께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전시를 준비하였다.



← 〈모란문 큰 접시[青花白磁 大盤]〉, 명·청시기,
 입지를 32.8cm, 청진동 유적 출토
 → 청진동 유적 출토 명문자기

차 문화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된 고려시대 생활도자를 선보인 경기도자박물관의 특별전을 소개한다.

다향다색 茶香多色： 차문화 속 청자 이야기

Goryeo Celadon : Telling Stories About Tea

노영희 蘆泳希 Noh Younghee

경기도자박물관 학예연구사 京畿陶磁博物館 學藝研究士
Gyeonggi Ceramic Museum, Curator
422@kocef.org

전시기간 2020년 12월 4일(금) ~ 2021년 3월 28일(일)

전시장소 경기도자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고려유적출토품, 청자유물, 현대작품 등 121점

경기도자박물관이 마련한 기획전 『다향다색 茶香多色 : 차문화 속 청자 이야기』는 한국 청자문화에 밑거름이 된 '차(茶)'에 주목하여 차 문화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된 고려시대 생활도자를 선보이고자 기획되었다.

한국 역사상 차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바로 고려였다. 당시 동아시아를 매료시킨 차(茶)는 고려사회에서 왕권의 상징이자, 부처님 공양물, 그리고 귀족의 기호식품 등 품격있는 고급문화로 자리하게 되었다. 고려는 청자 다구의 국내 생산을 위해 중국 월주요(越州窯)의 선진 청자기술을 수용하였고, 통일신라의 회유도(灰釉陶)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골지의 청자 생산국이 되었다. 청자는 시대적 취향과 사용자의 권위를 담은 고려의 대표 도자기로 부상하였고, 문화의 척도로서 500년간 차 문화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갔다.

이번 전시는 청자의 다양한 빛깔을 조명하는 1부 '다색多色_푸른 청자를 꽂피우다'와 청자에 깃든 차향을 조명하는 2부 '다향茶香_향긋한 차를 즐기다' 두 개의 주제로 나눠 고려시대 차문화 속 청자 이야기를 살펴본다. 1부에서는 고려 최초의 청자 다완인 중서부지역 해



무리굽 완부터 개경으로 가는 태안 앞바다 난파선 속 강진청자까지 청자다구의 생산과 유통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차를 준비하는 행다용구(行茶用具), 차를 마시는 음다용구(飲茶用具) 등 세련미 넘치는 청자다구를 한자리에 모아 차의 생활모습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석곽묘에서 온전하게 발견된 청자다기 일괄뿐만 아니라 단양 현곡리 석곽묘 출토 중국도자, 파주 혜음원지 출토품 등 고려유적 발굴성과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기간 중에는 '청색'과 '다기' 모티브를 재해석한 도예가 5인의 도자작품으로 구성한 현대식 다점(茶店)공간이 아트라운지에 마련되어 있어 작품 감상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언제 어디서든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 (<http://www.kocef.org>)를 접속하면 VR을 이용한 온라인관람이 가능하며, 차와 청자 전문가의 특별강연도 볼 수 있다. 차가 전하는 문화적 향수를 통해 우리도자에 담긴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청자 해무리굽 완, 고려 11세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청자 다기〉, 고려 12세기, 인천 검단 불로동 19호 석곽묘 출토, 주자 전체높이 17.6cm, 호남문화재연구원

중국 경덕진도자박물관에서 열린 송·원시대에 제작된 미황유 자기 특별전을 소개한다. 미황유 자기는 신안선에서도 출수된 예가 있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도 흥미로운 전시주제이다.

송·원시대 미황유 米黃釉 자기 특별전

이정류방: 彝鼎에 이름을 남기다

Archaic Bronzes Transformed
: Song and Yuan Wares with Straw Colour Glaze

차오전원 Cao Jianwen 曹建文

경덕진도자대학 예술문박학원 교수 景德鎮陶瓷大學 藝術文博學院 教授
Art and Archabology School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professor
cjwt1962@163.com

전시기간 2020년 7월 2일(목) ~ 2020년 8월 17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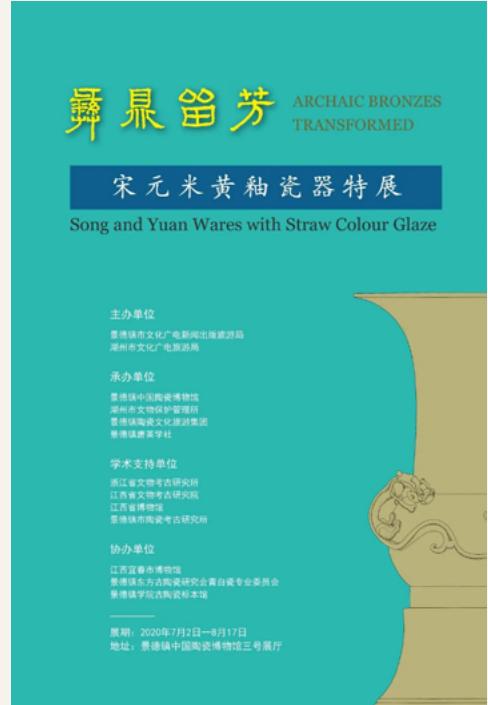
전시장소 경덕진 중국도자박물관 3층 전시실

전시유물 중국 6개 박물관 및 여러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송·원시대 경덕진요 미황유
자기 200여 점과 강서 길주요, 복건 장주요 자기 등

이정류방(彝鼎에 이름을 남기다)– 송·원시대 미황유 자기 특별전은 경덕진시 문화광전
신문출판관광국과 후저우시 문화광전관광국 주최, 경덕진중국도자박물관, 후저우시 문
화보호관리소, 경덕진도자문화관광그룹, 경덕진당영(唐英)학사, 경덕진동방고도자연구회
주관으로 2020년 7월 2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경덕진 중국도자박물관 3호 전시실
에서 개최되었다. 전시에는 경덕진 호전요, 낙마교 고고발굴 출토 표본을 비롯하여, 저장
성 후저우 범석교 유적 출토 표본, 장시성 문물고고연구원 및 장시성박물관, 이춘시 박물
관, 개인 소장가들의 소장품, 그리고 송원시대 길주요, 명대 장주요 도자기 등 200여 점
이 전시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전요의 유적에서 채집과 고고 발굴조사를 통해 송·원시대 중요한
미황유 자기 표본들이 발견되었는데, 품질이 뛰어나며 기형 또한 풍부하여 실로 전무후무하
다고 할 수 있다. 또 낙마교의 고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되어 경덕진에
는 미황유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가 여러 곳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장성 후저우의 범석
교 유적은 최근 국내 송·원시대 도시 유적의 중요 고고학적 성과로 여기에서도 송·원시대의
미황유 자기가 출토되었고, 경덕진 요지에서 발견된 자료와의 상호 검증을 통해 산지와 소비
지의 중요한 역사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북송 아래 모고사조(摹古思潮, 옛것을 모방하는 사조)의 영향으로 제사 때 자기로 옛것
을 모방하여 제작된 이정(彝鼎)을 예기(禮器)로 사용하였고, 이는 송나라 문인 사대부가 공통
적으로 따르는 것이었다. 호전요를 중심으로 한 경덕진 요장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남송부



터 원초에 이르기까지 화로·정(鼎)·준(尊)·고(觚)·
병 등의 옛것을 모방한 예기를 번조하였는데, 품질
이 정교하고도 고풍스러워 경덕진 송·원시대 요업
에서 매우 독특한 희귀 품종이 되었다. 하지만 시
간이 흘러 후대에 전해지는 미황유 자기는 길주요
계 혹은 경덕진 이외의 요장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이번 특별전은 여러 해 동안 학계에서 논란
이 되었던 미황유 자기들의 생산지 문제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송·원시대 남방지역 요
업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지
고 있다. 아울러 경덕진 도자사를 보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자 경덕진 자기 제작 기술에 대한 중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2020년 8월 15일에는 경덕진 중국도자박
물관에서 송·원시대 미황유 자기 국제학술대회
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 10여 명이 최근 몇
십 년간의 고고학 발굴조사와 침몰선에서 출수된
예, 과학 기술 분석 및 수집과 문헌 자료 방면의
새로운 발견을 토대로 송·원시대 미황유 자기의
생산지 문제와 공예 발전, 생산품의 특성 등에 대
한 문제를 교류하고 토론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황유 자기 연구에 보다
풍부한 학술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下面介绍一下在中国景德镇陶瓷博物馆举行的宋元时期制作的米黄釉瓷器特展。米黄釉瓷器在新安沉船也有出水的例，因此对国内外学者来说也是非常有趣的展览主题。

彝鼎留芳—— 宋元时期米黄釉瓷器特展 暨国际学术研讨会简介

曹建文 Cao jianwen
景德镇陶瓷大学艺术文博学院教授

展览时间 2020年7月2日 ~ 2020年8月17日

场 所 景德镇中国陶瓷博物馆3号展厅

展示文物 展览共展出中国6家文博机构和多家民间收藏的200余件（组）宋元景德镇窑米黄釉瓷器及江西吉州窑、福建漳州窑瓷器

彝鼎留芳——宋元时期米黄釉瓷器特展由景德镇市文化广电新闻出版旅游局和湖州市文化广电旅游局主办，景德镇中国陶瓷博物馆、湖州市文化保护管理所、景德镇陶瓷文化旅游集团、景德镇唐英学社、景德镇东方古陶瓷研究会承办，于2020年7月2日至2020年8月17日在景德镇中国陶瓷博物馆3号展厅。展览共展出米黄釉瓷器展品200余件，包括景德镇湖田窑、落马桥考古出土标本，浙江湖州凡石桥遗址考古出土标本，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江西省博物馆、宜春市博物馆、私人收藏家收藏的相关藏品以及宋元时期吉州窑、明代漳州窑等窑口的瓷器。

近年来在湖田窑遗址采集和考古发现一批重要宋元时期米黄釉瓷器标本，水平之佳，品质之好，器型之丰富，可谓空前绝后。落马桥考古发掘亦有同类发现，可见景德镇有多处烧造米黄釉瓷器的窑场。浙江湖州凡石桥遗址是近年国内宋元城市遗址考古的重要成果，其中出土一批宋元米黄釉瓷器遗物，与景德镇窑址发现资料相互印证，见证了产地与消费地的重要历史联系。

北宋以来，在摹古思潮影响之下，用于祭祀和清供瓷质摹古彝鼎的礼器，成为宋代文

송·원시대 미황유 자기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기념사진



미황유 삼공기(三供器) 세트, 송·원시대, ↑
경덕진동방고도자연구회 청백자전문위원회 소장
전시장 내부 모습 ↓

人士大夫的共同追求。以湖田窑为中心的景德镇窑场顺应市场之需，南宋至元初曾烧造一批以炉、鼎、尊、觚、瓶类为主的摹仿礼器，品质精致、气息古雅，成为景德镇宋元时期窑业非常独特的一个罕见品类。然而，由于时过境迁，在后世流传当中，世人皆视米黄釉瓷器为吉州窑之范围，或是景德镇以外其他窑口的产品。特展旨在厘清困扰学术界多年的米黄釉瓷器的窑口归属问题，对于探索和解决宋元时期南方地区窑业问题具有重大意义。同时，也是对景德镇陶瓷史的一次重要的补充，对自身制瓷技术的一次重大的探索。

2020年8月15日在景德镇中国陶瓷博物馆还举办宋元米黄釉瓷器国际学术研讨会，十余位国内外专家学者基于近几十年的考古发掘、沉船出水、科技分析、以及收藏和文献资料方面的新发现，对宋元米黄釉瓷器的窑口归属、工艺发展、产品特色等问题进行交流探讨。此次会议的召开将为学术界推动米黄釉瓷器的研究提供更多学术参考与借鉴。

중국 자계시 상림호월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공동 주최하여 상림호월요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 고려청자 사진전을 살펴본다.

“비색의 이미지： 고려청자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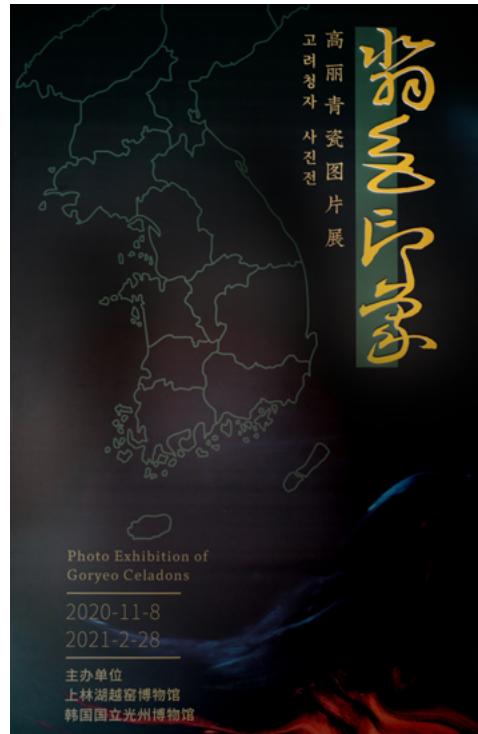
Images in Jade-green: A Photo Exhibition of Goryeo Celadon

조우산산 周杉杉 Zhou Shanshan

자계시 상림호월요박물관 학예연구사 慈溪市上林湖越窯博物館 助理館員

Shanglin Lake Yue Kiln Museum, Assistant Curator

zhoushanshan3593@163.com



전시기간 2020년 11월 8일(일)~2021년 2월 28일(일)

전시장소 자계시 상림호월요박물관

전시유물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청자 사진 48건 54점 8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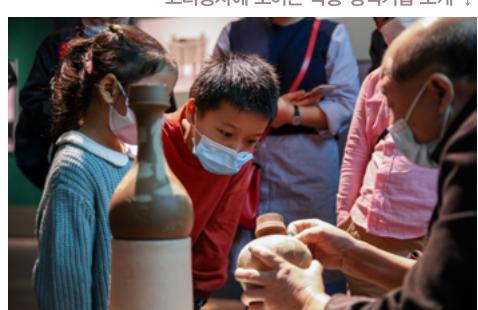
“비색의 이미지 : 고려청자 사진전”은 자계시 상림호월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공동 주최하여 11월 8일 상림호 월요박물관 전시실에서 개막하였다. 본 전시는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사진 48건을 통해 관람객들이 비색 예술의 시각적 향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고려청자 문화의 대중적인 전시다.

전시는 2개의 주제로 나뉘며, 1부에서는 고려청자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전성기에 이르는 역사적 맥락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 2부는 고려청자의 주요 장식 공예를 실마리로 하여 「비색청자」, 「각(음각, 양각, 투각)·인(압출양각) 청자」, 「상형청자」, 「상감청자」, 「철화청자」 등 5 종류로 분류하여, 12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의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전성기의 수준 높은 고려청자 제작기술과 독창적인 예술 풍격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청자는 월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천여 년 전, 월요청자와 제작기술은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도달했고, 고려청자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조형과 유색(釉色)에서 중국 전통 자기 제작 공예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고려의 예술양식도 감상할 수 있는데, 이는 국경과 민족을 넘나드는 문화적 교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월요의 중심 산지인 자계 상림호에서 개최되어 역사를 이어가는 교류를 보여준다.

본 전시는 체험공간도 같이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것 외에 직접 참여 활동을 통해 고려청자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시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도자기 제작 체험모습 ↑
고려청자에 보이는 각종 장식기법 소개 ↓



由中国慈溪市上林湖越窑博物馆和国立光州博物馆共同主办，在上林湖越窑博物馆展示室举办的高丽青瓷图片展。

“翡色印象： 高丽青瓷图片展” 展览简介



상형청자 전시 사진

周杉杉 Zhou Shanshan
慈溪市上林湖越窑博物馆 助理馆员

- 展览时间** 2020年11月8日~2021年2月28日
场 所 慈溪市上林湖越窑博物馆
展示文物 展览共展出韩国国立光州博物馆和韩国国立中央博物馆收藏的高丽青瓷的精美图片48组，展示了高丽青瓷的图片48组，共计54件80张

“翡色印象——高丽青瓷图片展”由慈溪市上林湖越窑博物馆和韩国国立光州博物馆联合主办，于11月8日在上林湖越窑博物馆临展厅开幕。展览共展出韩国国立光州博物馆和韩国国立中央博物馆收藏的高丽青瓷的精美图片48组，为观众呈现了一场翡色艺术的视觉盛宴，是一次高丽青瓷文化的普及性展览。

展览分为两个部分。第一部分简要讲述了高丽青瓷产生、发展与走向鼎盛的历史脉络。第二部分以高丽青瓷的主要装饰工艺为线索，分「素面翡色」「刻印兼施」「精绝之作」「相嵌成象」「浓墨华彩」五个单元，内容以12世纪至13世纪初的高丽青瓷为主，展现了高丽青瓷在鼎盛时期的高水平制瓷技术和独具匠心的艺术风采。

高丽青瓷与越窑有着深厚的渊源。一千多年以前，越窑青瓷和技术远渡重洋到达朝鲜半岛，促成了高丽青瓷的诞生。在高丽青瓷优美的造型与釉色中，既能找到中国传统制瓷工艺的特征，又能欣赏到独特的高丽艺术风格，从中折射出跨越国界与民族的文化交融。此次展览在越窑的中心产地——慈溪上林湖举办，是一次延续历史的交流。

配合展览一起举行的还有一系列公众活动，观众在参观展览之余，还能参与互动，动手体验，加深对高丽青瓷的认识。展览时间将持续至2021年2月28日。



전시실 내부모습

중국 흑유도자 중에서도 명품으로 알려진 천목다완을 모아 전시한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특별전을 소개한다.

天目—中国黒釉の美 천목 天目： 중국 흑유도자의 미 美

Tenmoku: The Beauty of Chinese Black-Glazed Ware

정은진 鄭銀珍 Jung Eunjin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학예연구사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學藝員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Curator

jung@moco.or.jp

전시기간 2020년 6월 2일(화)~2020년 11월 8일(일)

전시장소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전시유물 중국 당시대부터 송·금시대 작품 24점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서는 6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보 <유적천목(油滴天目)>과 중요문화재 <목엽천목(木葉天目)>을 비롯한 ‘천목(天目)’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흑유도자(이하 흑유로 한다)를 조명하고,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에 개인 소장품을 더하여 당시대부터 송·금시대의 작품 총 24점을 소개하는 특별전 ‘천목—중국 흑유도자의 미’를 개최하였다.

최근 일본 국내외에서 국보 <요변천목(曜變天目)>을 비롯한 천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된 중국 도자 8점 가운데 5점이 남송 시대의 천목이며, 중국산 천목, 이른바 ‘당물천목(唐物天目)’이 일본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는지 알 수 있다. 송나라 때 건요(建窯)에서 만들어진 흑유 다완(茶碗)의 최고봉인 국보 <요변천목>과 <유적천목>을 비롯해 일본에는 명품 천목이 다수 전해지고 있어 천목의 세계적 보고라 할 수 있다.

중국 도자 역사에서 청자, 백자와 더불어 중요한 계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흑유이다. 본격적인 흑유는 후한시대(25~220년)에 청자와 함께 등장한 이후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다. 흑유라고 해도 그 색조와 질감은 다양하다. 거기에는 사람의 기술뿐만 아니라 가마 안에서 생긴 우연한 작용, 하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천공(天工)’이 더해져 흑유를 더욱 심오하게 만들었다.

전세(伝世) 유적천목 중 최고 걸작이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의 국보 <유적천목>이다. 유약 표면에 생긴 기름방울 같은 반문(斑文)이 그 이름의 유래이다. 다완 내외의 흑유에 빽빽이 생긴 은색 반문에는 청색과 금색으로 빛나는 광채(무지개빛)가 더해져 환상적인



<유적천목(油滴天目)>, 남송 12~13세기, 건요(建窯),
높이 7.5 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번에 국보 <유적천목>을 처음으로 면진(免震) 장치가 달린 회전 전시대에 올려 360도 전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적천목>의 내저면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관람객용 빌판을 설치했다. 아울러 작품의 새로운 이해와 감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색상과 질감의 재현이 뛰어난 고화질 광파장역(廣波長域) 촬영한 사진을 전시 작품의 캡션과 함께 게시했다. 그동안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작품들의 본래 지난 색상과 질감이 훌륭하게 재현된 사진은 유적천목의 새로운 매력의 재발견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번 전시와 함께 개최한 특집전 ‘현대의 천목–전통과 창조’에서는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의 작가들에 의한 전통적인 천목의 재현과 새로운 창작, 나아가 칠공예 천목 작품 등을 소개했다. ☺

亚洲陶瓷文化 国立光州博物馆新闻通讯 第十二号

要約

02 陶瓷展览 1：国立光州博物馆新设亚洲陶瓷文化室

国立光州博物馆学艺研究士張孝真介绍该馆新设的“亚洲陶瓷文化室”与其常设展。展览介绍国内外陶瓷资料，让观展人一目了然地理解亚洲陶瓷发展史、韩国陶瓷的特点与流向，不仅为一般观众，也为国内外专家学者提供丰富多彩的资料。展览在介绍韩国陶瓷的同时，还介绍中国、日本与越南陶瓷，帮助人们理解各国陶瓷的特色、陶瓷史中的地位与互相交流的面貌。此外，展览还展示本馆镇馆之宝新安海底文物精品与开放式库房，全面介绍有关情况。

04 陶瓷展览 2：汉城百济博物馆藏归属国家文物特展《发掘之后：清进地区》

汉城百济博物馆学艺研究士宋东林介绍归属国家文物特展《发掘之后：清进地区》。该展介绍首尔特别市钟路区清进洞遗址等六处遗址的发掘过程、保护措施与出土文物。这些遗址中共出土了六千多件以上遗物，其中朝鲜前期流通、使用的瓷器所占比重最大。通过出土文物我们可以确认清进洞及其周边地区曾是朝鲜时期的行政、文化与商业中心。

05 陶瓷展览 3：《茶香多色：茶文化与青瓷》

京畿陶瓷博物馆学艺研究士卢泳希介绍该馆展览《茶香多色：茶文化与青瓷》，展览基于韩国青瓷文化的土壤——“茶”，重点介绍茶文化与多样的高丽时期日用瓷器，详细介绍高丽时期青瓷茶具的生产与流通文化，展出洗练的青瓷茶具介绍当时的饮茶生活。与茶文化有关的高丽遗址近期发掘成果也在展览中正式亮相。

06 国外陶瓷展览 1：《彝鼎留芳——宋元时期米黄釉瓷器》

景德镇陶瓷大学艺术文博学院教授曹建文介绍在景德镇中国陶瓷博物馆举行的宋元时期米黄釉瓷器特展。特展旨在厘清困扰学术界多年的米黄釉瓷器的窑口归属问题，对于探索和解决宋元时期南方地区窑业问题具有重大意义。同时，也是对景德镇陶瓷史的一次重要的补充，对自身制瓷技术的一次重大的探索。

08 国外陶瓷展览 2：《翡色印象：高丽青瓷图片展》

韩国国立光州博物馆和慈溪市上林湖越窑博物馆联合主办“翡色印象——高丽青瓷图片展”，于11月8日在上林湖越窑博物馆临展厅开幕。展览共展出韩国国立光州博物馆和韩国国立中央博物馆收藏的48组54件高丽青瓷的80张精美图片，为观众呈现一场翡色艺术的视觉盛宴，是一次高丽青瓷文化的普及性展览。配合展览一起举行的还有一系列公众活动，观众在参观展览之余，还能参与互动，动手体验，加深对高丽青瓷的认识。

10 国外陶瓷展览 3：《天目——中国黑釉陶瓷之美》

大阪市立东洋陶瓷美术馆学艺员郑银珍介绍该馆特展《天目——中国黑釉陶瓷之美》，展览集中了以日本国宝“油滴天目”、重要文化财“木叶天目”为代表的中国黑釉瓷器，展出大阪市立东洋陶瓷美术馆馆藏品、个人收藏品等从唐代到宋、金时期的共24件作品。同时展出的瓷器图片逼真再现以往肉眼无法确认的陶瓷本身的色彩与质感，让人们重新发现油滴天目之美。

正文(PDF文件)可在国立光州博物馆官网(gwangju.museum.go.kr)下载。

アジア陶磁文化 国立光州博物館ニュースレター 第12号

要約

02 陶磁の展示 1：国立光州博物館にアジア陶磁文化室を新設

国立光州博物館の張孝真(チャン ヒヨン)学芸研究士が、新設された「アジア陶磁文化室」を紹介します。この空間は、国内外の陶磁を通してアジアの陶磁の発達史のなかで韓国陶磁の特性や流れについて理解を深めてもらうとともに、陶磁器に関心のある人々や国内外の陶磁専門家に興味をもってもらえるようなさまざまな資料を提供することを目的に設けられました。今回の展示は、韓国だけでなく、中国、日本、ベトナムの陶磁器を通して各国の陶磁の特徴や位置づけを理解し、相互交流の様相を確認できる有意義なものとなるでしょう。なお、当館の代表コレクションである新安海底文化財を名品展示やグループ展示で紹介します。

04 陶磁の展示 2：漢城百濟博物館所蔵国家帰属遺物特別展「発掘、その後：清進地区」

漢城百濟博物館の宋東林(ソン ドンリム)学芸研究士が、国家帰属遺物特別展「発掘、その後：清進地区」を紹介します。ソウル特別市鍾路区清進洞遺跡を中心に6つの遺跡の発掘過程や保存措置、出土品などを紹介した展示です。6つの遺跡から出土した6000点以上の遺物のうち最も大きな割合を占めるのが、朝鮮時代を通じて流通使用された磁器です。それらの出土品から、朝鮮時代、清進洞やその周辺地域が行政・商業の中心であったことを確認できます。

05 陶磁の展示 3：「茶香多色：茶文化の中の青磁の物語」

京畿陶磁博物館の盧泳希(ノ ヨンヒ)学芸研究士が、企画展「茶香多色：茶文化の中の青磁の物語」を紹介します。本展では韓国の青磁文化の土台となつたお茶に注目し、茶文化とともにさまざまな展開を見せた高麗時代の生活陶磁が展示されます。高麗時代における青磁の茶道具の生産や流通などについて学ぶほか、洗練された美しさを放つ青磁の茶道具が一堂に並び、お茶のある暮らしに思いを馳せていただけます。さらに、茶文化に関連する高麗遺跡の最新の発掘成果も紹介されます。

06 国外の陶磁の展示 1：「彝鼎留芳(彝鼎に名を残す)——宋元時代米黄釉磁器」

景德镇陶磁大学藝術文博学院の曹建文教授が、中国景德镇で開催された宋元時代米黄釉磁器特別展を紹介します。本特別展は、数年にわたり学界で議論になった米黄釉磁器の生産地の問題や、宋元時代の南方地域の窯業の問題を探ります。それは景德镇の陶磁史の裏打ちにつながるだけでなく、景德镇の磁器製作技術に関する重要な探求でもあります。

08 国外の陶磁の展示 2：「翡色のイメージ：高麗青磁写真展」

「翡色のイメージ：高麗青磁写真展」は、慈溪市上林湖越窑博物館と国立光州博物館の共催で、11月8日から上林湖越窑博物館で開かれます。本展は、国立光州博物館と国立中央博物館が所蔵する高麗青磁の写真48件54点80枚を通して「翡色芸術」の視覚的な饗宴を体験するという、気軽にお楽しみいただける展示です。会場には体験空間も設けられ、目で見るだけでなく体で理解を深められるようにしました。

10 国外の陶磁の展示 3：「天目——中国黒釉の美」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の鄭銀珍(チョン ウンジン)学芸員が、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所蔵品に個人所蔵の作品を加えた唐時代から宋・金時代の作品計24点による特別展「天目——中国黒釉の美」を紹介します。本展は日本の国宝「油滴天目」や重要文化財「木葉天目」など天目を中心とした中国の黒釉陶磁にスポットをあて、これまで肉眼では確認できなかった作品本来の色や質感が再現された写真と一緒に掲示し、油滴天目の魅力を再発見できるようにしました。

原文(PDFファイル)は国立光州博物館ホームページ gwangju.museum.go.krで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Asian Ceramic Culture

ABSTRACT

02 Exhibition 1

Opening of the Asian Ceramics Gallery at the Gwangju National Museum

Jang Hyojin, Associate Curator at the Gwangju National Museum, introduces the newly established Asian Ceramics Gallery. This gallery is dedicated to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Korean ceramics with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Asian ceramic culture through a permanent display of ceramic works from both home and abroad. It will provide an interesting experience to all visitors, from general ceramics enthusiasts to professionals and specialists in the field. Along with Korean ceramics, the gallery also features examples from China, Japan, and Vietnam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and of the cultural exchanges that took place between these nations. The gallery also serves as a visible storage for the Gwangju National Museum's collections with the highlights from the relics recovered from the Sinan Shipwreck.

04 Exhibition 2

After Excavation, a Special Exhibition of State-owned Artifacts from the Seoul Baekje Museum Collection

Song Donglim, Associate Curator at the Seoul Baekje Museum, introduces the special exhibition *After Excavation*. The exhibition presents the excavation process, preservation measures, and uncovered relics from six historic sites in the Cheongjin-dong district of Jongno-gu in, Seoul. Showcased in the exhibition are more than 6,000 artifacts recovered from the six sites, among which the largest proportion is made up of porcelain wares that were circulated and utiliz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e excavated relics demonstrate that Cheongjin-dong and its vicinity served as a center of administration, culture, and commerce during the Joseon period.

05 Exhibition 3

Goryeo Celadon: Telling Stories About Tea

Noh Younghee, Associate Curator at the Gyeonggi Ceramic Museum, introduces *Goryeo Celadon: Telling Stories About Tea*. Highlighting tea, the foundation for celadon culture in Korea, the exhibition presents functional ceramics from the Goryeo Dynasty that developed apace with tea culture. The exhibition explores the tea culture of the Goryeo period through sophisticated celadon implements from the time and offers a glimpse into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lso presented are the recent achievements in the excavation of Goryeo-period ruins related to tea culture.

06 Overseas Exhibition 1

Archaic Bronzes Transformed: Song and Yuan Wares with Straw Colour Glaze

Cao Jianwen, a professor from the Art and Archaeology School at the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introduces a special exhibition held in Jingdezhen showcasing cream-colored porcelain ware from the Song and Yuan dynasties. The exhibition aims to inform the debate over the production site of this Chinese cream-glazed ware, which has been a controversial topic for several years. Its purpose is to examine and resolve the issues surrounding ceramics production in the southern regions during the Song and Yuan periods. The exhibition also marks an important ev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ceramic history of Jingdezhen and the study of its porcelain production technology.

08 Overseas Exhibition 2

Images in Jade-green: A Photo Exhibition of Goryeo Celadon

Jointly organized by the Shanglin Lake Yue Kiln Museum and the Gwangju National Museum, *Images in Jade-green: A Photo Exhibition of Goryeo Celadon* will be inaugurated at the Shanglin Lake Yue Kiln Museum on November 8, 2020. Showcasing eighty beautiful photographs of 48 works (in 54 items) of Goryeo celadon housed in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exhibition offers an opportunity for visitors to experience a visual feast in the distinctive jade-green tones of Goryeo celadon. The exhibition also offers a space for hands-on experiential learning to enhance visitor understanding of Goryeo celadon.

10 Overseas Exhibition 3

Tenmoku: The Beauty of Chinese Black-Glazed Ware

Jeong Eunjin, Assistant Curator at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Osaka, introduces *Tenmoku—The Beauty of Chinese Black-Glazed Ware*, an exhibition shedding light on Chinese black-glazed war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enmoku, including the tea bowls *Yuteki Tenmoku* (designated a National Treasure) and *Konoha Tenmoku* (designated Important Cultural Property). The exhibition showcases twenty-four works dating to the Tang through the Song and Jin dynasties housed in the Museum of Oriental Ceramics in Osaka and from private collections. Presented together with the artifacts are photographs that remarkably capture colors and textures within the works that can be difficult to see with the naked eye, thereby allowing the discovery of new charms in *Yuteki Tenmoku*.